

# 물류발전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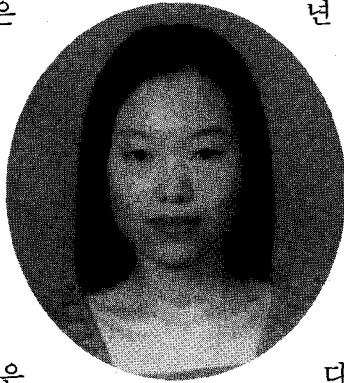
## 20대 물류포럼 부회장

허윤정 / (주)오세기고구려

**20**대 물류포럼 허윤정 부회장은 “우선 20대물류포럼 부회장이 된 것에 대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많이 느껴 집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20대의 젊은 사 고로 30대를 도와 물류의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고자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라 처음 접하는 사람들임에도 친근감이 느껴졌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이용해 20대물류포럼이 물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덧붙였다.


허윤정 부회장은 대학에서 유통을 전공, 배운 것을 토대로 (주)오세기 고구려 SCM팀에서 B/S(before service)를 하고 있다. B/S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전에 SCM팀에서 자료 분석, 상황판단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래는 무역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유통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선택에 대해서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10



년 뒤에는 유통 분야에서 여성 전문인이 되어있을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 전진할 것입니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은 물론 어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영문과 2학년에 입학하여 현재 영어의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류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잘못된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물류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이 분야에서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힘들 때도 웃으며 항상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허윤정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객서비스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택배사업에 있어서 고객 만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단체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라며 피력했다.

허윤정 부회장의 당당함과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며 남녀 성별의 장벽을 넘는 전문 물류인으로써, 또한 20대 물류포럼의 부회장으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리라 생각된다. 

권해진기자